

# 민·관·군이 함께한 땀방울, 담양군 피해 복구 이끌어

## 군부대·경찰·소방·자원봉사단체 등 5천여 명 참여, 응급복구 마무리에 큰 힘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은 담양군이 응급 복구를 대부분 마무리한 가운데, 민·관·군의 협력이 신속한 복구를 이끌며 지역사회 협력의 본보기가 되고 있다.

제6753부대 3세대 장병 2천여 명은 고서·창평·무정면 일대에서 농경지에 밀려든 흙과 돌을 제거하고 유실된 논두렁을 정비하는 한편, 침수된 주택 내부의 토사와 오염물질을 치우며 가재도구를 옮기는 작업을 진행했다.

한 주민은 “논밭이 흙더미에 파묻히고 집까지 물에 잠겨 막막했는데, 장병들이 밭 벗고 나서서 덕분에 다시 살아갈 희망이 생겼다”며 고마움을 전했다.

제11공수특전여단 장병 2천여 명도 봉산·수북·대전면 일대에서 농경지와 비닐하우스를 정비했다.

갑작스러운 집중호우로 토사가 밀려든 농경지를 정리하고, 흙탕물에 잠긴 비닐하우스를 복구해 농민들이 다시 농사를 이어갈 수 있도록 도왔다. 주민들은 “군인들의 손길이 없었다면 농사를

이어가기 어려웠을 것”이라며 감사의 뜻을 전했다.

담양경찰서는 특별재난지역 선포로 을지연습이 제외된 기간(7월 14~20일)을 활용해 피해 복구 지원에 적극 나섰다. 매일 15명의 인력을 수북 정동리, 무정 영천리, 창평 일산리 등 현장에 투입해 침수된 비닐하우스와 농경지 정리에 힘을 보탤 예정이다.

특히 무정면 영천리의 한 농가에서는 비닐하우스가 진흙과 흙더미로 뒤덮여 농작물을 건질 수 없는 상황이 벌어졌다.

고령의 농민이 손을 놓고 있던 가운데, 경찰관들은 이틀간 장화를 신고 진흙탕에 들어가 토사를 치우고 가재도구를 정리했으며 하루 종일 구슬땀을 흘렸다.

젓은 농작물 가운데 일부는 다시 살려내고 사용할 수 있는 농자재를 모아 정리했다.

농민은 “경찰이 치안만 맡는 줄 알았는데, 이를 통한 일손을 도와줘 일상 회복에 큰 도움이 됐다”며 감사를 전했다.



전라남도 및 담양군 의용소방대원 300여 명도 침수 피해가 심했던 비닐하우스와 농경지 정리에 나섰다. 물에 잠겨 훼손된 비닐을 철거하고 내부의 토사와 잔해물을 치우며 농민들이 하루빨리 영농을 재개할 수 있도록 도왔다.

아울러 이공이공봉사회, 여성자원봉사회, 새마을부녀회 등 자원봉사단체와 민간단체도 힘을 보탤 예정이다. 침수 주택 정리와 함께 대형 세탁 차량을 투입해 젖

은 이불과 옷가지를 세탁 지원했으며, 생필품과 구호물품을 긴급 전달해 이재민들의 생활 안정을 도왔다.

정철원 담양군수는 “복구 과정에서 이어진 헌신과 봉사의 손길은 지역사회의 연대를 확인하게 했다”라며 “다시 한 번 봉사에 나서준 모든 분께 감사의 말씀을 전하며, 군민이 안심할 수 있는 안전 담양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담양/이종욱 기자



HD현대삼호는 지난 22일 목포어린이바다과학관에서 열린 기증식을 통해 길이 2.37m, 폭 0.53m, 높이 0.59m 규모의 30만 톤급 초대형 원유운반선 모형 선박을 전달했다.

## HD현대삼호, 목포어린이바다과학관에 모형 선박 기증

### ESG 경영 활동 일환... 관람객 대상 해양산업 전문성·현장감 제공 기대

HD현대삼호(대표이사 김재을 사장)가 지역사회 해양 교육과 문화 확산을 위해 목포어린이바다과학관에 대형 모형 선박을 기증했다.

HD현대삼호는 지난 22일 목포어린이바다과학관에서 열린 기증식에서 길이 2.37m, 폭 0.53m, 높이 0.59m 규모의 30만 톤급 초대형 원유운반선 모형 선박을 전달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기증은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ESG 경영 활동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기증된 모형 선박은 실제 건조된 선박을 1/150로 축소 제작한 전시품으로, 과학관 전시에 활용돼 관람객들에게 해양산업의 전문성과 현장감을 제공할 예정이다.

임진택 목포어린이바다과학관 관장은 “박물관이 단순한 전시 공간을 넘어 시민과 함께 숨쉬는 열린 문화 공간으로 발전하기 위해, 사우 자녀 대상 해양생태 강좌, 봉사활동, 야외 음악회 등 다양한 지역사회 연계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다”며 “이번 기증을 계기로 현대삼호와 협력해 새로운 시도를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HD현대삼호의 한 관계자는 “모형 선박 기증은 미래 세대에 해양산업의 가치와 중요성을 알리기 위한 노력”이라며 “앞으로도 지역과 함께하는 해양 교육, 문화, 환경 활동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영암/김희선 기자

## 함평군, 신광면 복지기동대, 전기 화재 예방 앞장

### 119생활안전순찰대와 협력으로 효과 높여

전남 함평군 신광면 복지기동대가 전기 화재 예방 활동에 나서며 취약계층의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에 나섰다.

함평군은 25일 “신광면 복지기동대와 119생활안전순찰대가 함께 지난 21일 취약계층 13가구를 대상으로 멀티탭 교체 사업을 추진했다”고 밝혔다.

사업은 노후·불량 멀티탭 사용으로 인한 전기 화재 위험을 예방하고, 독거노인·장애인·저소득 가구 등 안전 취약계층의 생활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복지기동대는 현장 조사로 지원 가구를 발굴했으며, 119생활안전순찰대와 함께 각 가정을 방문해 노후 멀티탭을 KC인증 멀티탭으로 무상 교체했다.

이와 함께 전기 과부하 상태와 누전 여부를 점검하고, 올바른 전기 사용법을 안내해 안전사고 예방 효과를 높였다.

임의석 신광면 복지기동대장은 “화재 사고는 사후 대처보다 예방 더욱 중요하다”며 “취약계층의 화재 위험 요소를 근본적으로 줄일 수 있는 의미 있는 활동이었



다”고 밝혔다.

심희숙 신광면장은 “이번 협력 사업은 지역 내 안전망을 더욱 촘촘히 하는 계기

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복지와 안전을 함께 챙기는 맞춤형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함평/전광훈 기자



## 순천시 저전동 마중물보장협의체, 사랑의 여름김치 나눔 행사

### 취약계층 50세대에 김치와 두유 전달 및 안부 살피기

순천시 저전동 마중물보장협의체는 지난 25일 관내 취약계층 50세대를 찾아가 여름김치와 두유를 전달하고 안부를 살폈다. 이번 행사는 지역주민들의 자발적인 착한시민캠페인 참여를 통해 전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모금된 성금으로 추진됐으며, 폭염 속 어려운 이웃들이 건강한 여름을 보낼 수 있도록 돕고자 하는 따뜻한 마음을 담았다.

류지승 위원장은 “작은 나눔이지만 따

뜻한 위로와 힘이 되었으면 한다”며 “앞으로도 먼저 움직이는 협의체로서 도움이 필요한 이웃을 위해 지속적인 사랑을 실천하겠다”고 밝혔다.

신은숙 저전동장은 “행정과 지역사회가 함께 힘을 모아 따뜻한 나눔을 실천할 수 있어 뜻깊다”며 “앞으로도 협의체와 긴밀히 협력해 더불어 행복한 저전동을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저전동 마중물보장협의체는 고



독사 예방 및 복지사각지대 없는 저전동을 만들기 위해 독거노인, 장애인 등 취약계층 30세대에 반찬 나눔과 안부살피기를 5년째 이어오고 있으며 매년 복지사각지

대 가구 발굴 지원, 저소득층 김장김치 나눔 행사 등 평소 이웃 주민들의 어려움을 살피며 따뜻한 이웃 사랑을 실천해오고 있다. 순천/정성인 기자

## 고흥군, 고독사 고위험군·은둔형 외톨이에 따뜻한 손길

### 생필품·식품꾸러미 등 실생활에 필요한 물품 지원

고흥군(군수 공영만)은 지난 8월 26일, 홀로 지내며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고독사 고위험군과 은둔형 외톨이 등 지역 내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생필품과 식품꾸러미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번 지원은 여름철 무더위 속에 생활이 어려운 사회적 고립 가구에 건강한 식생활과 안전한 생활 여건을 제공하고자 마련됐으며, 고독사 예방·관리 및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특화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전달 꾸러미에는 여름철 건강관리에 도움이 되는 식료품과 일상생활에 꼭 필요한 생활용품 등이 포함돼, 수혜 가구의 실질적인 생활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고흥군은 폭염 등 계절적 위험 요소에 취약한 은둔형 외톨이와 고독사 위험가구를 직접 방문해 물품을 전달하고, 안부 확인과 함께 생활 실태를 세심하게 점검하는 등 맞춤형 복지 지원에도 힘을 쏟고 있다. 고흥/박도일 기자

2025 장성 방문의 해 Jangseong 방문의 해

국내 최대 규모 인공조림 속령산 편백숲

# 장성이 보내온 힐링 초대장